

천일염 수익성 속빈강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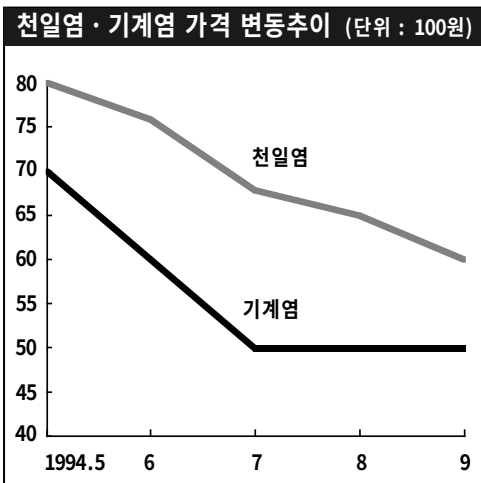
생산량 증가로 가격폭락 ... 기계염 대체 추세

최근 천일염 및 기계염의 생산이 크게 증가하면서 가격도 큰 폭으로 하락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련업체에 따르면, 최근 전국적인 가뭄으로 인해 천일염 생산이 크게 증가한 가운데 가격도 큰 폭으로 하락, 94년 하반기에는 6000원선이 무너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94년 1~7월까지의 천일염 생산은 38만톤으로 93년동기 28만톤대비 40%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는데 이는 93년에는 흐린날씨가 많아 작황이 좋지 않았으나 94년에는 무더위로 인해 생산이 호조를 보인 것이 주요인으로 풀이되며 향후에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천일염가격 변동추이를 보면 7월20일기준 50 Kg짜리 가마당 전국집산지 평균가격이 685 0원으로 7월1일 7600원대비 1000원이 하락했는데, 이같은 추세는 지속될 것으로 보여 8월에는 6000원선이 무너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지역별 주요시세를 보면, 경기지역이 740 0원, 전북 지역 7300원으로 전국 평균가격보다 높은 시세를 보였고 전남지역은 6200 원으로 낮은 시세를 보였다.

또 기계염도 천일염 생산기업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한주가 울산공장 생산능력을 기존의 20만톤에서 15만톤으로 5만톤을 줄인데 반해 명주에 10만톤규모 공장을 가동중에 있어 기계염 생산능력이 25만톤으로 증가했다.

기계염은 천일염에 비해 염도가 좋아 향후 생산량 증가가 예상되고 있다.

기계염의 가격은 공장도가격 기준 Kg당 4950 원에 거래되고 있는데 각 수요기업에서 선호하고 있어 천일염에 비해 가격하락은 낮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한편, 천일염은 국내 염전이 대부분 노후화돼 영세성을 면치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기계염에 비해 경쟁력이 낮아 향후 기계염으로 대체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데 기존의 천일염 생산기업들의 반발로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화학저널 1994/8/22>